

GIST, 지역인재 5명에게 (재)정원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수여

- 김용만 이사장, 2년째 GIST에 정원장학기금 1천만 원 기탁... "우수 인재들이 꿈을 이뤄 나가는 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"



▲ GIST 행정동 5층 총장실에서 임기철 총장, 정용화 대외부총장,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'(재)정원장학복지재단의 장학금 수여식'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(사진 가운데) 정원장학복지재단 김용만 이사장과 GIST 임기철 총장(오른쪽에서 세 번째)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광주광역시 송덕고등학교 학교법인 청송학원 김용만 이사장이 (재)정원장학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한 장학기금으로 '**제1회 정원장학생**'을 선발하고,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23일(월) 밝혔다.

정원장학금은 광주에서 초·중·고를 졸업하고 성적이 뛰어난 GIST 학생을 **매해 5명 선발하여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인재육성장학금**이다.

수여식은 행정동 5층 총장실에서 임기철 총장, 정용화 대외부총장, 김재관 대외협력처장과 (재)정원장학복지재단 관계자,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(재)정원장학복지재단은 청송학원 송덕고등학교 설립자인 김길수 선생이 양친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**지난 2000년 3월 설립한 이래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.**

특히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, 고아, 미혼모가정, 다문화가정, 불우청소년, 무의탁 노인과 그 보호시설에 **후원금과 물품을 후원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.**

2대 김용만 이사장 취임 후, 장학사업과 사업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해 2년째 GIST에 정원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.

(재)정원장학복지재단의 김용만 이사장은 “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독려하고 더 큰 인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”고 말하며, “GIST 학생뿐 아니라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꿈을 이뤄 나가는 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”고 밝혔다.

임기철 총장은 “GIST 학생들이 이사장님의 뜻을 헤아려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이끄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